

2025학년도 중등 교육 임용시험 대비

전공일반사회

단기합격을 위한 월비스임용
GUIDE BOOK

허역 · 이웅재 · 정인홍 · 김현중

목 차

- I. 월비스 임용 일반사회팀 소개
- II. 월비스 임용 일반사회팀 연간 강의계획
- III. 사회과교육론 수험전략
- IV. 사회문화 수험전략
- V. 정치 수험전략
- VI. 경제학 수험전략
- VII. 법학 수험전략

1. 월비스 임용 일반사회팀 소개

월비스 임용 일반사회팀은 허역(경제), 김현중(정치), 이웅재(사회문화, 사회과교육론), 정인홍(법) 등 각 파트를 전담하는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월비스 임용 일반사회팀은 2000년 허역 선생님 혼자 중등임용시험 일반사회과 전공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중등임용시험 일반사회과는 전공을 구성하고 있는 사회과교육론, 정치, 경제, 법과 사회, 사회문화 등 5개 분야가 성격과 접근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기존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1인 강사의 통합 수업 방식에서 벗어나 개별 과목별 전공 강사의 팀 티칭 방식을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이후 월비스 임용 일반사회팀만의 집중반 형식의 강의를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오면서 분야별 전문성과 노하우를 집적해 왔습니다. 임용 수험 시장에서 오랫동안 꾸준히 자리를 지키며 강 의해 온 유일한 사회과 전공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비스 임용 일반사회팀은 일반사회과 예비교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터넷 '다 음(daum)' 카페 '임용고시 사회(<http://cafe.daum.net/imyongsahoi>)'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경제 외의 과목 질문은 임용고시 사회(<http://cafe.daum.net/imyongsahoi>)에서 받고 있으며, 경제 과목 질문은 월비스 홈페이지 '질답 게시판'에서 받고 있습니다.

II. 윌비스 임용 일반사회팀 연간 강의계획

시기	강좌명	내용 및 특징	대상
1~4월 (16주 과정)	1~2월 사회과 교육론 집중반(8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중반 체제를 처음 도입하여 다년간의 노하우가 집적된 일반사회 팀만의 독보적 강의 • 단원별 주요 내용 정리 + 기출문제 분석 + 출제 경향 분석 및 예측 • 기초부터 시작해서 심화 내용까지 다루는 일반사회 영역별 단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역별로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분석 및 정리가 필요한 모든 수험생 • 영역별로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분석 및 정리가 필요한 모든 수험생
	1~2월 경제 집중반(8주)		
	1~3월 법 집중반(12주)		
	3~4월 사회문화 집중반(8주)		
	3~4월 정치 집중반(8주)		
5~7월 (12주 과정)	기출문제 분석 및 문제풀이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임용 시험의 주요 주제를 단원별로 짚어보는 강의 • 영역별 예상 문제를 통해 이론적으로 학습한 내용을 보다 실천적으로 정리해나가는 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용 시험의 주요 포인트를 빠르게 확인하고자 하는 초보 수험생 • 집중반에서 학습한 내용을 기출 중심으로 복습하고자 하는 수험생 • 수험 준비의 올바른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하는 수험생
8~9월 (6주 과정)	4인 4색반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목별 주제를 정하여 핵심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분석 • 경제]기출에 의한 기출을 위한 반복+보충강의
		법	
		정치	
		사회문화	
		사회교육론	
9~11월 (8주 과정)	실전모의고사 및 핵심 내용 정리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전과 유사한 형식의 모의고사를 통한 최종 마무리 + 영역별 최종 마무리 핵심 내용 정리 	

※위 계획표는 추후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교재비 별도)

Ⅲ. 사회과교육론 수험전략

1. 출제 경향

사회과 교육론은 올해 7문항(24점)이 출제되어 작년과 문항 수, 배점에 있어 거의 유사한 수준이었다.(배점 상으로 +1점 추정). '바이블'이라 할 수 있는 일명 모차책 (동문사) 중심의 출제 경향도 여전하고 난이도 상으로도 작년과 유사하게 평이한 수준이었다. 다만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관련 내용이 출제되었다는 점이 그나마 특징이라면 특징이다.

출제 경향이 크게 달라진 점은 없기에 2025 임용 시험 준비를 위한 기본적 공부 방향에도 달라질 점은 없다 할 수 있다.

사회과교육론은 비중이 높은 데 비해 시험 준비하기는 비교적 용이한 과목이다. 그 이유는

- ① 모경환·차경수 공저 "사회과 교육"[제3판](동문사)라는 특정 텍스트에서 집중적으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고
- ② 기출 시험의 범주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는 출제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 공부 방법

- (1) 기본 수험서(모차책)에 대한 출제의존도가 절대적이므로 이 수험서를 꼼꼼하게 정리하는 공부 가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한다. 모차책의 내용을 조합하거나 그대로 옮기면서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 혹은 내용을 묻는 문제가 다수 출제되고 있다. 출제 가능성 있는 주요 키워드에 대한 세심한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 (2) 주관식으로 전환된 이후에 기출된 주제들을 우선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한다. 기출된 주제들은 다시 출제될 경우 어떻게 변형되어 출제될 수 있을지 모차책의 맥락을 세심하게 살펴보는 공부가 필요하다. 그리고 아직 출제되지 않은 주제들(특히 객관식 시절에 출제된 주제들 중 주관식으로 아직 출제되지 않은 주제들)이 무엇이 있는지 점검하고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3. 주요 수험도서

- (1) 모경환·차경수 "사회과 교육"[제3판] (동문사) - 필수
- (2) 박상준 "사회과 교육의 이론과 실제"(교육과학사) - 참고
- (3) 김영석 "사회과교육론" [2판] (교육과학사) - 참고
- (4) 강대현 "사회과교육론" (동문사) - 참고
- (5) 정문성 "협동학습의 이해와 실천"(교육과학사) - 참고

IV. 사회문화 수험전략

1. 출제 경향

사회문화는 5문항(16점)으로 문항 수와 배점이 작년과 동일했다. 4점짜리 3문제는 각각 사회학 파트 2문제 (사회집단 관련, 일탈이론 관련), 사회조사방법론 파트 1문제(표집방법) 가 출제되었고, 2점짜리 단답형은 사회학 파트에서 1문제(베버 관련 개념), 문화인류학 파트에서 1문제(모스 관련 개념, 레비스트로스 관련 이론)가 출제되었다.

모든 문제가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출제되었다 할 수 있고, 난이도도 무난한 수준이라 할 수 있었다. 다만 문장의 일부 내용을 생략해놓고 이를 완성하라고 한다거나, 특정 용어를 포함하여 진술하라고 요구하는 새로운 형태의 질문방식이 등장한 것이 특기할 만한 사항이다.

2. 공부 방법

(1) 교과서 내용의 주요 주제를 빠짐없이 점검, 정리한다.

: 임용 준비의 '기본'이기도 하지만 사회문화는 특히 다른 수험과목에 비해 특히 교과내용과의 연계성이 큰 주제들이 자주 출제된다.

(2) 임용 시험의 빈출 주제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게 정리한다.

: 사회문화는 참고해야 할 개론서가 사회학, 문화인류학, 사회조사방법론 등 여러 권이다. 따라서 교과서 이외 범위에서 어떤 주제가 출제될지 막막할 수 있다. 이럴 때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것이 기출문제이다. 기출된 주제 중심으로 개론서를 읽어나간다면 분량에 대한 부담은 한결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비판사회학회의 '사회학'은 반드시 보아야 할 필수 개론서이긴 하지만 그 방대한 모든 내용을 섭렵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출된 파트를 점검하다 보면 의외로 아주 한정된 영역에서 반복적으로 인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문화인류학 파트나 사회조사방법론 파트의 필수 서적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객관식 시절의 출제 범위를 확인하고 주관식 전환 후 아직 출제가 안 되고 있는 주제가 무엇인지 체크해보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3) 영역의 확장 문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주요 개론서에서 새롭게 출제 가능성 있는 영역에서의 주요 키워드를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

3. 주요 수험도서

- (1) 사회학 : 비판적 시선 - 비판사회학회 - 한울아카데미 - 필수
- (2) 사회학의 이해 (제2판)- 권태환, 홍두승, 설동훈 - 다산출판사 - 참고
- (3) 사회과학연구방법론 - 노성호 · 구정화 · 김상원 - 박영사 - 필수
- (4) 사회조사분석 제4판 - 홍두승 · 설동훈 - 다산출판사 - 참고
- (5) 문화 인류학 - 한상복, 이문웅, 김광역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필수
- (6) 『민족, 문화, 인간 : 인류학의 창조』 -김용환 -강원대학교 출판부 - 참고
- (7) 사회문화 교과서, 수능 · 평가원 기출문제

V. 정치 수험전략

1. 출제 경향

(1) 출제 영역 분석

- ① 정치사상: 홉스와 로크의 자연권 비교(14), 공동체주의(15), 롤스의 정의론(16), 루소(17), 루소/공리주의/숙의민주주의(23)
- ② 정치과정: 양원제(14), 다수대표제 vs 비례대표제(14, 17), 정당제도(14), 정당-립셋과 로칸의 균열 구조 이론(15), 평등선거원칙(16), 선거제도와 투표율/투표의 역설(16), 단순다수제와 절대다수제 + 두베르제 명제(18), 대표를 바라보는 관점(19), 정당의 역사적 발전(19), 공정한 선거제도/득표율과 의석률의 비례성(19), 선거제도를 구성하는 요소(20), 선호 투표제와 결선 투표제의 비교 및 비례대표제(21),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22), 선거구제와 지역주의(23), 정당/이익집단/시민단체(24)
- ③ 민주주의: 국민투표제(14), 다원주의(17), 숙의민주주의(18), 권력분립 견제수단(18), 직접 민주주의의 요소(19), 고대 아테네의 직접민주주의와 국민투표제(20), 국민소환제(24)
- ④ 정부형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제도적 문제점(16), 이원정부제(17), 권력의 지리적 배분에 따른 정부형태(19), 의원내각제에서의 정당 제도에 따른 정국 상황 및 의회의 우월성 확보를 통한 책임 정치 구현 여부(21), 대통령제에서의 정국 상황(22)
- ⑤ 정치발전: 헌팅턴의 정치발전이론(15)
- ⑥ 국제정치: 주권평등원칙(14), 오건스키의 세력전이이론(15), 비정부기구의 평가지표(17), 국제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및 안보딜레마와 민주평화론(18), 집단안보와 신현실주의(20), 국제기구과 관련한 다양한 관점(23), 보호책임원칙과 UN(24)
- ⑦ 정치권력론: 권력과 권위(18), 정치적 권위의 유형과 제한정부 및 고전적 자유주의에서의 정부 역할(21), 엘리트 이론과 다원주의(22)

(2) 정치학 출제의 특징

- ① 주요 출제 포인트였던 정치과정영역, 국제정치, 민주주의, 정부형태 등이 여전히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2024년 시험 역시 주요 출제 영역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 ② 2015년 시험의 국제정치 출제 영역인 세력전이 이론은 일반적인 개론서에는 다루지 않는 주제였었다. 그러나 해당 문제를 좀 더 주의깊게 살펴보면 답안에 쓸 수 있는 많은 사항들이 주어진 제시문 속에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당황하지 않고 평상심을 유지하며 제시문 분석만이라도 충실하게 수행했다면 충분히 쓸 수 있었던 문제였음을 상기하길 바란다.
- ③ 비정부기구의 평가기준에 관한 기입형 문제(2017)와 보호책임원칙 관련 문제(2024)는 일반적 개론서와 각론서에서는 다루지 않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의 배점은 높지 않고, 그 누구도 정답을 확신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에, 차후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의 경우, 이 문항으로 인해 정치학의 학습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려 하지 말고, 선거제도, 정부형태, 국제정치 등의 주요 주제를 잘 정리하고 이를 자신의 생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실질적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하고 싶다.

2. 공부 방법

① 교과 기본 내용 정리

고등 교과 정치와 법 과목 기본 내용의 정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것은 임용 시험 준비의 기초이자 출발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기본적인 교과 내용이 그대로 쉽게 출제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해당 교과 내용을 실제 교단에서 강의해야 하는 현실적 이유를 제외하더라도, 이후 수험과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치학적 지식을 교과 내용과 관련하여 적용할 수 있고, 출전과 출처를 따져나갈 수 있는 학습의 뼈대를 잡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역대 수능 문제와 평가원 모의고사의 문제를 점검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② 기출문제 분석

정치학은 일단 학습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 오랜 학문적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이에 따른 내용의 방대함이 수험자로 하여금 방향의 설정마저 힘들게 할 수 있다. 이때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임용시험에서의 기출문제이다.

일단, 기출문제를 통해서 시험을 주관하는 측의 입장에서 정치학의 주요 주제와 출제 포인트라고 바라보는 영역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③ 주요 개론서 정리

수능 형태의 기본 교과적 내용으로만 한정되어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학 개론 수준의 지식 적용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기출된 영역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학습이 개론서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함과 동시에, 중요 주제이지만 출제되지 않았던 영역에 대한 예상과 분석을 통해 자신만의 수험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④ 서답형 시험의 특징을 이해하라!

서답형 시험은 주요 기입형과 서술형의 형태로 출제된다. 이는 많은 수험생들이 익숙한 형태의 시험인 객관식 시험과는 다른 형식임을 우선 숙지해야 한다. 객관식 시험은 문장을 읽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각종 이론과 개념 학습시 문장별로 세밀한 독해와 판단이 필요하다. 그러나 서답형 형식은 주요 키워드를 암기하고 이를 직접 기입하는 능력을 요구한다. 이는 평소 학습시 난해한 문장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습관에서 탈피하여, 큰 줄기를 잡고 이론과 원리의 전체적 맥락을 살펴 자신이 직접 쓸 수 있는 키워드를 활용하여 궁극적으로는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하는 것이다.

3. 추천도서

- ① 정치학의 이해 - 서울대 공저 - 박영사
- ② 현대 정치과정의 동학 - 고경민 - 인간사랑

VI. 경제학 수험전략

1. 출제 경향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수험생들이 또는 강의하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출제영역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은 출제였습니다. 결국 내용이 충실한 교재를 중심으로 대비하게 되면, 출제자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성향이 담겨, 일반적인 예상의 정도를 넘는 문제가 출제되지 않는 한, 답안 작성에는 큰 문제가 없겠다는 생각을 갖게 한 출제라고 평가됩니다. 다만 올해는 미시경제 부분에서 2 문항, 국제경제에서 1문항이 출제되었고, 거시경제 부분의 출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출제구성이었습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여전히 각 부분 간의 균형 있는 출제에 대한 아쉬움을 갖게 하는 출제였습니다.

2. 2024학년도 출제 문제에 대한 분석

<A형 - 12번>

다음을 읽고, <작성방법>에 따라 서술하십시오.

<2024>

경제학에서 상품 가격 변화와 수요량 변화 사이에서 나타나는 역(-)의 관계를 ㉠수요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 법칙은 상품의 가격 변화가 소비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X재와 Y재만을 소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다른 조건이 일정한 상황에서 X재의 가격이 하락하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아진 X재의 소비를 늘리고 Y재의 소비를 줄여 기존의 효용을 유지하고자 할 것인데 이를 대체효과라고 한다. 한편 X재의 가격이 변화하면 이전과 동일한 소득으로 구입할 수 있는 X재와 Y재의 수량이 달라지는데, 이는 실질소득의 변동으로 인한 효과이다. 이러한 실질소득 변화가 상품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소득효과라고 한다.

대체효과는 어느 한 재화의 가격과 수요량이 항상 반대로 움직이도록 작용하지만, 소득효과는 수요의 소득탄력성에 따라 방향과 크기가 달라진다. 필수재나 사치재와 같이 소득탄력성이 양(+)의 값을 가지는 재화를 (㉡)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가격이 낮아질 때 수요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높아질 때 수요량이 감소하는 수요의 법칙을 설명할 수 있다. 한편, 음(-)의 소득탄력성 값을 가지는 재화를 (㉢)이라고 하는데, 이 중 ㉢가격이 하락하는데도 수요량이 줄어드는 특성을 가진 재화를 기펜재라고 한다.

<작성 방법>

- 괄호 안의 ㉠, ㉡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쓸 것.
- 밑줄 친 ㉠을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를 포함하여 서술할 것.
- 밑줄 친 ㉡이 나타난 이유를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를 포함하여 서술할 것.

<분석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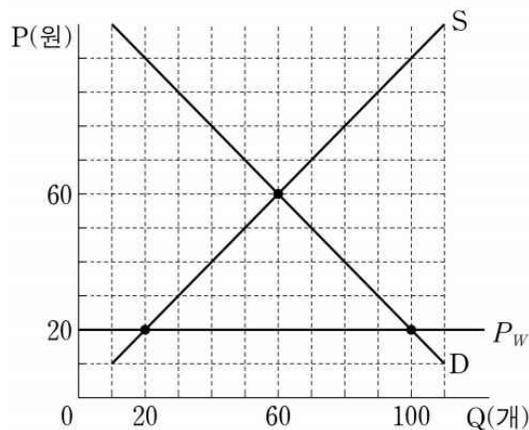
- ⊕ : 정상재, ⊖ : 열등재
- ㉠ : 대체효과는 한 재화의 가격과 수요량이 항상 반대로 작용한다. 이때 대체효과와 소득효과 모두 가격과 수요량이 반대로 작용하는 경우(정상재)는 물론이고 대체효과가 가격과 수요량이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소득효과 보다 큰 경우(기펜재가 아닌 열등재)와 같이 가격과 수요량이 역(-)의 관계가 성립하는 현상을 수요의 법칙이라고 한다.
- ⊖ : 가격이 하락할 때 수요량이 증가하는 대체효과에 비해 가격이 하락할 때 수요량이 오히려 감소하는 소득효과가 더 크기 때문이다.

<B형 - 10번>

다음은 갑국의 무역 정책에 관한 자료이다. <작성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2024>

그림은 외국으로부터 국제 가격($P_W = 20$)으로 X재를 수입하고 있는 갑국의 X재 시장 상황을 나타낸다.



갑국은 자국의 X재 생산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아래의 [정책 1], [정책 2] 중 한 가지를 시행하고자 한다. 단, 정부는 수입되는 X재를 판매할 수 있는 면허를 수입업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으며, 갑국은 소국이어서 X재의 국제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정책 1] X재 수입량을 60개로 제한하는 수입할당제를 실시한다.
- [정책 2] 수입되는 X재 한 단위 당 t원의 관세를 부과하여 [정책 1]과 수입량이 동일해 지도록 한다.

<작성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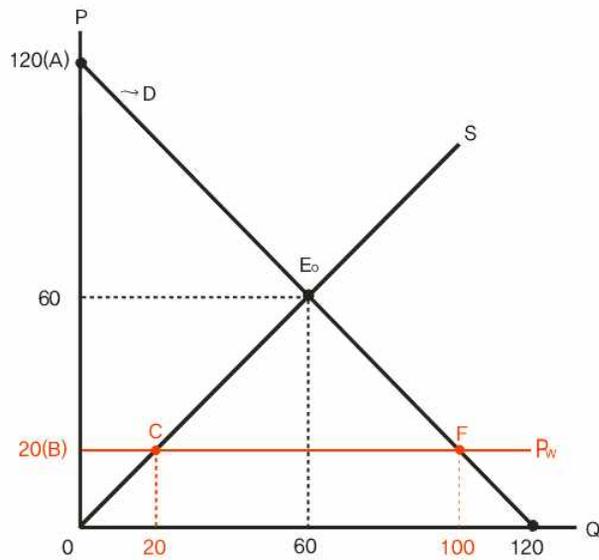
- [정책 1]의 실시 후, 증가하는 국내 생산자 잉여와 감소하는 소비자 잉여를 순서대로 쓸 것.
- [정책 2]에서 수입되는 X재 한 단위 당 부과해야 하는 관세의 금액을 쓸 것.
- [정책 1]과 [정책 2]의 차이점을 정부의 재정 수입에 관한 계산 결과를 포함하여 서술할 것.

<분석하기>

○ 주어진 조건에 따라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 ◆ 수요곡선 : $P = -Q + 120$
- ◆ 공급곡선 : $P = 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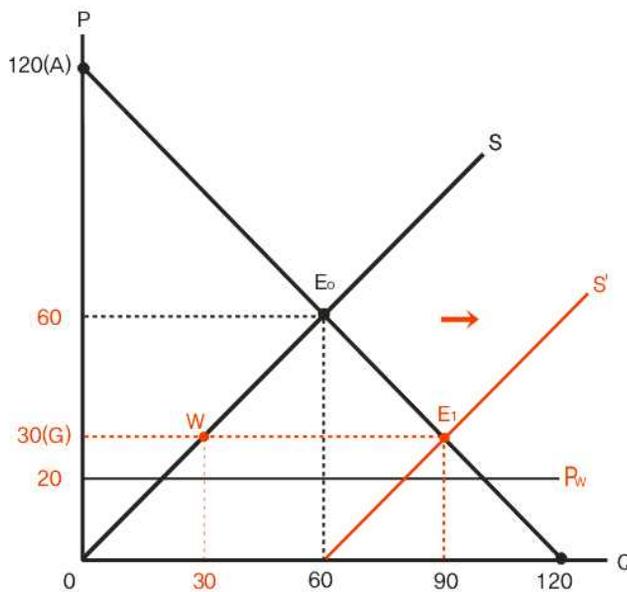
이를 전제로 국제 가격($P_W = 20$)으로 X재를 수입하는 국내 생산자 잉여와 소비자 잉여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



- ◆ 국내 생산자 잉여(삼각형 OBC) : $20 \times 20 \times \frac{1}{2} = 200$
- ◆ 국내 소비자 잉여(삼각형 ABF) : $100 \times 100 \times \frac{1}{2} = 5,000$

또한 [정책 1]과 같이 X재 수입량을 60개로 제한하는 수입할당제를 실시하는 경우 공급곡선과 국내 생산자 잉여와 소비자 잉여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

- ◆ 수요곡선 : $P = -Q + 120$
- ◆ 공급곡선 : $P = Q \Rightarrow P = (Q - 60) \Rightarrow P = Q - 60$



◆ 국내 생산자 잉여(삼각형 OWG) : $30 \times 30 \times \frac{1}{2} = 450$

◆ 국내 소비자 잉여(삼각형 AE_1G) : $90 \times 90 \times \frac{1}{2} = 4,050$

이에 따라 [정책 1]의 실시 후, 국내 생산자 잉여는 '250(= 450 - 200)'만큼 증가하고, 소비자 잉여는 '-950(= 4,050 - 5,000)'만큼 감소하게 된다.

- [정책 2]와 같이 수입되는 X재 한 단위 당 t원의 관세를 부과하여 [정책 1]과 수입량(=60)이 동일해 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입품의 국내 판매가격이 국제 가격($P_W = 20$) 보다 10만큼 높은 30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수입되는 X재 한 단위 당 부과해야 하는 관세(=동등관세)의 금액은 '10'이다.
- [정책 1]에서 정부의 재정수입은 '0'인 반면에 수입업자는 **할당된 수입량 60단위를** 단위 당 '20'에 수입하여 '30'에 판매할 수 있게 되어 '600(= 60 × 10)'만큼의 할당지대를 얻을 수 있다. 반면에 [정책 2]에서 수입업자의 할당지대는 '0'인 반면에 정부의 **재정수입은 600(60 × 10 = '수입량 × 단위당 관세')**이 된다. 결국 국내 생산자 잉여와 소비자 잉여의 변화에는 차이가 없고, 동일한 금액만큼 [정책 1]에서는 수입업자의 할당지대만 발생하게 되고, [정책 2]에서는 정부의 재정수입만 발생하게 된다.

※ 참고로 [정책 1] 또는 [정책 2]를 시행하는 경우 자원 배분의 변화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정부 재정수입 (또는 수입업자 할당지대)	사회적 총잉여
정책 시행 전	5,000	200	0	5,200
정책 시행 후	4,050	450	600	5,100

결국 [정책 1] 또는 [정책 2]의 시행 결과, 사회적 총잉여가 100만큼 감소하게 되고, 이 크기가 [정책 1] 또는 [정책 2]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중손실(deadweight loss)이다.

<B형 - 11번>

다음을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2024>

갑국의 통신 서비스 시장은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산업의 특성으로 인해 A기업이 상당한 시장 지배력을 가진 전형적인 자연독점 상태에 있다. A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과 비용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 시장 수요곡선 : $Q = -P + 100$
- 한계수입(MR) : $-2Q + 100$
- 한계비용(MC) : 30
- 평균비용곡선(AC)은 MC곡선 위에서 우하향하는 곡선이다. (단, Q는 수량, P는 가격을 나타내며, 정부는 A기업의 생산비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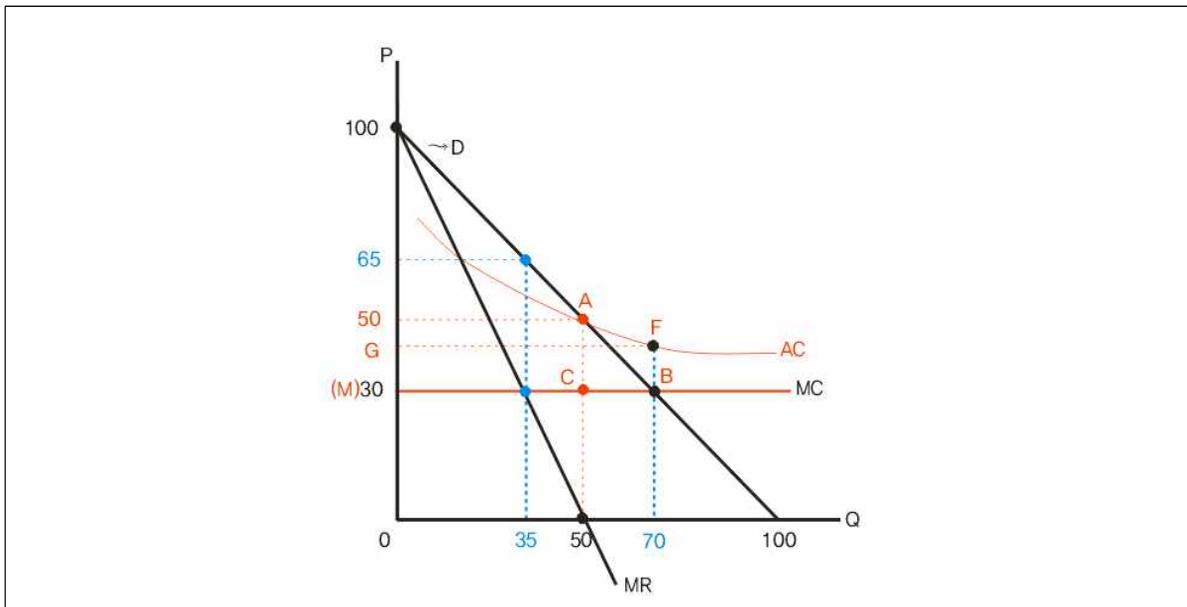
정부는 A기업이 시장에서 과도한 독점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통신 서비스 가격을 기업의 한계비용과 같아지도록 가격을 규제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가격을 한계비용에 맞추는 정책이 시행되면 기업의 운영이 불가능하여 지속가능한 규제가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며, ㉡기업의 평균비용곡선과 수요곡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의 가격($P = 50$)으로 가격 상한을 설정하는 정책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작성 방법>

- 규제 시행 전 A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는 가격을 쓸 것.
- 밑줄 친 ㉠의 이유를 '이윤'이라는 용어를 포함하여 서술할 것.
- 완전경쟁일 때와 비교했을 때, 밑줄 친 ㉡의 경우 A기업이 얻는 이윤과 사회적 후생 손실을 순서대로 쓸 것

<분석하기>

주어진 조건들을 전제로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이윤극대화 : $MR=MC \Rightarrow -2Q+100=30 \Rightarrow 2Q=70 \Rightarrow Q=35 \Rightarrow P=65$
- ㉠ : 가격(P)을 한계비용($MC=30$)에 맞추는 정책을 실시하게 되면 생산량(Q)은 70이 된다. 이에 따라 평균비용(점 F 까지 높이)이 한계비용(점 B 까지 높이=30)보다 $(F-B)$ 만큼 높기 때문에 ' $P < AC$ '가 성립하게 되어 A기업은 이윤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사각형 $MBFG$ 만큼의 손실을 보기 때문이다.
- ㉡ : 완전경쟁에서는 ' $P=MC$ '가 성립하여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시장 생산량(Q)은 70이 된다. 그런데 $P=50$ 수준에서 가격 상한을 실시하게 되면 시장 생산량(Q)은 50이 되어 과소생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 $P=AC=50$ '가 되어 이윤은 '0'이 되며, $\triangle ABC$ 부분인 ' $200(=20 \times 20 \times \frac{1}{2})$ '만큼의 사회적 후생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3. 경제학 공부 방법

1) 경제학적 마인드를 키우자!

경제적 선택에 있어서 항상 자원 제약이라는 조건을 잊어서는 안 되고 그것에 기초한 선택이 곧 경제학에서 요구하는 것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경제학적 마인드인 것입니다.

2) 경제이론에 전제된 가정에 유의하자!

경제학자는 끊임없이 모든 경제현실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경제이론을 정립하기 위한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현실의 모든 경제변수를 고려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그러한 시도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단순화 작업을 통해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경제학자들이 즐겨 전제하는 조건이 그 유명한 "ceteris paribus"인 것입니다.

3) 기본적인 미분법을 반드시 숙지하자!

미시 경제학은 기본적으로 최적화 문제를 다루는 분야입니다. 그것은 자원 제약에 따른 필연적인 귀결입니다. 이에 따라 주어진 목표의 최적화를 묻는 것이 미시 경제학의 중심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최적 상태를 알기 위해 필요한 수학적 지식이 바로 미분법입니다. 총함수를 주어진 변수로 1차 미분하면 그것이 한계함수이고, 그 한계함수를 0이 되게 하는 수준에서 총함수의 최적 조건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문제를 살펴볼까요.

문제) 어떤 재화의 수량을 X 라 하고 총효용이 $TU = -3X^2 + 120X$ 일 때 한계효용은?

풀이) $MU = \frac{dTU}{dX} = -6X + 120$

위 문제는 총함수와 한계함수와의 관계, 그리고 아주 아주 간단한 미분법만 알면 정답률 100%가 가능한 문제입니다. 만약 위 문제를 총효용이 극대일 때 수량을 구하는 문제로 변형된다면, 그것은 한계효용이 0일 때이므로 $X=20$ 이라는 답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4) 그래프와 친해지자!

그래프는 경제이론을 가장 간단히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경제학의 설명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서술되어 있는 내용을 단순히 암기하는 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그래프를 통해 내용을 정리하길 바랍니다. 이러한 그래프를 통한 이해는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 때 우리에게 융통성 있는 풀이법을 제시해 줍니다.

다음과 같은 문제를 살펴볼까요.

문제) 수요함수가 $Q=100-5P$ 일 때, 독점기업의 총수입이 극대인 가격수준은?

풀이) $Q=100-5P$ 를 변형하면 $P=20-\frac{1}{5}Q$ 이므로,

총수입(TR)= $P*Q=(20-\frac{1}{5}Q) \times Q=20Q-\frac{1}{5}Q^2$ 이 되어 한계수입(MR)= $20-\frac{2}{5}Q$ 가 된다. 따라서 총수입이 극대가 되기 위해서는 한계수입이 0이 되어야 하므로 $Q=50$ 과 $P=10$ 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단히 고지식한 방법입니다.

평소에 그래프와 친한 센스를 발휘하면, 수요함수가 선형함수(직선)로 주어질 때 총수입이 극대가 되는 한계수입=0인 수준에서 수요의 가격탄력도가 1인 경우이고, 그것은 곧 중점이므로 $P=10$ 이라는 답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찮아도 평소에 그래프와 자주 만나서 안면 좀 더 두기를 바랍니다.

5) 미시가 전제되지 않는 거시는 존재하지 않는다!

흔히 경제학 교재가 미시경제와 거시경제로 각각 별도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양자의 상호 보완적 관계의 중요성을 간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야말로 경제학 공부를 더욱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물론 미시와 거시가 연구범주와 방법론에 차이가 있지만, 양자는 동전의 양면인 것입니다.

6) 거시 경제학은 역사이다!

극히 기술적인 미시 경제학과 달리 거시 경제학에는 학자들의 철학이 담겨있습니다. 또한 당시의 시대정신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Smith의 대표적 저술의 제목은 왜 "국부론"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약 250년 전의 학자들의 주된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나라를 부자로 만들어서 국민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을까 하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거시 경제학을 공부할 때는 학자들이 활동했던 시대의 역사적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빠른 이해를 돕는 지름길입니다.

4. 추천도서

경제 집중반 수업을 위한 본인의 'AK 임용경제학 길라잡이(박영사)' 외에 국내의 가장 대표적인 경제학 기본서인 '현대경제학 원론'(박영사, 김 대식의 2인 공저), '경제학 원론'(법문사, 이 준구외 1인 공저) 중 어느 것이든 하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Ⅶ. 법학 수험전략

1. 출제 경향

(1) 지난 10년간의 출제 경향

지난 10년 동안 법학 문제는 어떤 해는 지나치게 쉽고 어떤 해는 지나치게 어려워서 일정한 난이도를 예측하기 어려웠다. 쉽게 출제된 해는 대입수준으로 출제되다가 어려운 해는 개론서를 철저히 공부해도 거의 손도 못 대는 수준으로 출제되기도 했다.

(2) 이번 시험(2023년11월 시행된)의 출제경향

이번 시험에서 법은 2점짜리 기입형 2문제(법일반론 1문제, 헌법과 노동법 결합 1문제)와 4점짜리 서술형 4문제(헌법 2문제, 민법 1문제, 형법과 형사소송법 결합 1문제) 총6문제 20점이 출제되었다. 난이도는 중상정도였다.

2. 공부 방법

(1) 고등학교 '정치와 법' 교과서와 '교사용지도서'를 정독해야 한다.

고등학교 교과서 수준으로만 공부해서 합격하기가 어렵기는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은 교과서 수준에서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법학 공부의 시작은 교과서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용어의 개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법학에서 쓰는 용어들은 법학을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것들이 많다. 더구나 어떤 용어들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의미와 다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서점에 가서 법전을 펼쳐들고 읽어보면 마치 외국어를 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을 정도이다.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개념별로 가장 전형적인 사례를 2~3개 정도씩 기억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개념을 이해하면 구체적인 사례를 접했을 때 새로운 사례에도 개념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저절로 생긴다.

(3) 공부의 깊이를 적당한 수준에서 조절해야 한다.

중등임용시험의 기출문제 중 상당 부분이 교과서로 커버가 되지만, 고등학교 교과서 수준으로만 공부해서 합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험대비에 적합한 개론서가 요구되는데, 예비사회과교사들이 중등임용시험을 대비하면서 곤혹스러운 점 중 하나가 적합한 법학개론서가 없다는 점이다.

그렇다보니, 법학에 관한 전공서적을 통독하거나 판례들을 자세히 분석하는 수험생들도 있는데 이런 공부 방법은 너무 비효율적이다. 법학은 로마시대부터 축적되어온 방대한 이론들이 있고, 해마다 엄청난 양의 판례가 쏟아진다.

법학에 관한 전공서적은 정말 이해가 안 될 때 이해를 위해서 읽어볼 수는 있어도 통독의 대상은 절대 아니다. 그리고 판례는 개념을 이해할 때 필요한 사례로서 이용해야지 판례를 위주로 공부해서는 안 된다.

3. 추천도서

앞에서 언급했듯이, 예비사회과교사들이 중등임용시험에 적합한 법학개론서는 아직까지는 없다. 따라서 우리 시험에서 기본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책을 추천하기는 어렵고, 반드시 읽어야 하는 참고용도서로 5종(미래엔, 지학사, 비상교육, 금성출판사, 천재교과서 등)의 고등학교 '정치와 법 교과서'와 '교사용지도서'를 추천한다.

1~4월 강의안내

"1~11월 일반사회 연간패키지" EVENT

"연간 등록 시"
100,000원
상품권 증정

2,860,000원 **20% OFF** → 2,288,000원

선착순
한정

과목별 10%추가 할인

2023년 월비스 임용 일반사회 온오프 연간 패키지 수강생
기간한정 2023. 12. 31까지

강좌	과목	교재	수강료	개강	
1~4월 일반사회 이론집중반	1~2월 (8주 과정) 경제(허역) 수 11:00~18:00 목 11:00~13:30	· AK임용경제학 (박영사_2024개정판)	240,000원 10% 할인 216,000원	기간한정 1,100,000원 특별 20% 할인 ↓ 880,000원	1월 3일(수)
	1~2월 (8주 과정) 사회과 교육론(이종재) 목 14:30~18:30	· 교원임용 사회교육론 (가치산책_2024개정판) · 차모책 3판(동문사_개정판)	180,000원 10% 할인 162,000원		1월 4일(목)
	1~3월 (12주 과정) 법(정인홍) 금 10:00~17:00	· 교원임용 법 (가치산책_2024개정판)	240,000원 10% 할인 216,000원		1월 5일(금)
	3~4월 (8주 과정) 정치(김현중) 수목 10:00~13:00 <예 정>	· 교원임용 정치 (가치산책_개정판)	220,000원 10% 할인 198,000원		3월 6일(수)
	3~4월 (8주 과정) 사회문화(이종재) 수목 14:00~17:00 <예 정>	· 교원임용 사회문화 (가치산책_개정판)	220,000원 10% 할인 198,000원		3월 6일(수)

· 집중반 체제를 처음 도입하여, 다년간의 노하우가 집적된 사회 팀만의 독보적 강의
· 단원별 주요내용정리+기출문제 분석+출제경향 분석 및 예측
· 기초부터 심화 까지 다루는 일반사회 영역별 단과반

※위 계획표는 추후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교재비 별도)

시기	강좌명	내용 및 특징	대상
1~4월 (16주 과정)	1~2월 사회과 교육론 집중반(8주)	· 집중반 체제를 처음 도입하여 다년간의 노하우가 집적된 일반사회 팀만의 독보적 강의 · 단원별 주요 내용 정리 + 기출문제 분석 + 출제 경향 분석 및 예측 · 기초부터 시작해서 심화 내용까지 다루는 일반사회 영역별 단과반	· 영역별로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분석 및 정리가 필요한 모든 수험생 · 영역별로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분석 및 정리가 필요한 모든 수험생
	1~2월 경제 집중반(8주)		
	1~3월 법 집중반(12주)		
	3~4월 사회문화 집중반(8주)		
	3~4월 정치 집중반(8주)		
5~7월 (12주 과정)	기출문제 분석 및 문제풀이반	·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임용 시험의 주요 주제를 단원별로 짚어보는 강의 · 영역별 예상 문제를 통해 이론적으로 학습한 내용을 보다 실천적으로 정리해나가는 강의	· 임용 시험의 주요 포인트를 빠르게 확인하고자 하는 초보 수험생 · 집중반에서 학습한 내용을 기출 중심으로 복습하고자 하는 수험생 · 수험 준비의 올바른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하는 수험생
8~9월 (6주 과정)	4인 4색반	경제	· 과목별 주제를 정하여 핵심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분석 · 경제]기출에 의한 기출을 위한 반복+보충강의
		법	
		정치	
		사회문화	
9~11월 (8주 과정)	실전모의고사 및 핵심 내용 정리반	· 실전과 유사한 형식의 모의고사를 통한 최종 마무리 + 영역별 최종 마무리 핵심 내용 정리	